

에研 조순행 박사 참석

지난 6월 20일 런던 WEC 본부에서 “21세기의 에너지기술”(Energy Technologies for the 21st Century) 위원회가 열려 한국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조순행 박사가 참석하였다.

이 연구조사 위원회는 Task 1, 2로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Task 1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40여개 주요 국가에서 에너지기술개발 연구비 투입을 어떤 형태로 해왔는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에너지기술 부문별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핀란드 등은 각 국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거의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기타 회원국들은 자료작

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도 공공부문 자료는 거의 수집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연구비투자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에너지협의회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사에 자료제공 협조를 의뢰한 바 있다.

Task 2는 Task 1에서 수집분석한 에너지기술개발비 투자추세와 국제적인 수요,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여 21세기에는 어떠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는 일인데, 다음 회의인 10월 6일까지 각국 위원들이 자료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로 e-mail을 통하여 의견교환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WEC 2000년도 집행이사회

11. 20~24, 뉴델리에서 개최

WEC의 2000년도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가 오는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집행이사회는 WEC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전회원국이 동일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이 회의를 통해 WEC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임원선출 등 운영제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금년도 집행이사회에서는 WEC의 정관을 대폭 개정하여 그동안 임원협의체 성격으로 운영해오던 Officers Council을 명실상부한 이사회로

지위 향상을 시키고, 차기 의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외 주요 행사로는 청정화석연료 워크샵, 에너지가격체계 심포지엄, 인도에너지데이, 에너지전시회, 지역별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각국 참석자들을 위해 발전소 등 산업시설 견학이 실시된다.

현재 에너지협의회 사무국에서는 국내 회원사들의 참가문의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